

“십자가 사랑 - 그 전부의 사랑”

누가복음 8:49-56

4 월 첫주일을 맞이 했습니다. 이번달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달에는 이 아이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달리다굼” 이 한마디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은 회당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41 절에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외딸이 죽어감이라” 아이로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하여 아이로인들 무슨 수를 쓰지 않았겠어요. 온갖수단을 다 써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간다고 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위해 못할 일 있겠어요. 간이식. 콩팥이식.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못쓰겠습니까? 그 부모들요 매일 매일의 삶이 눈물로 가득찬 삶이었을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것은 외동딸이 죽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주님을 찾아 간 것입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재산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입니다. 시 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 축복이 무엇인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로가 주님께 왔습니다. 살려주세요하니. 주님이 “알았다. 집으로 가자” 아이로는 이 말씀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난데없이 혈우병 여인이 나타나서 가시는 길을 STOP 시킨 것입니다. 아이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딸이 나올 것인데, 느닷없이 혈우병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날 옷자락을 만진다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누가 밭칩니다. 아니다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같은 보고를 합니다. 49 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다는가 하면,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현명한

판단 같습니까? 이제, 저 선생은 필요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사람을 데려간든 무슨 소용이 없단 뜻 입니다. 아이로는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사가 끝이구나.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저 여자때문이라고 내 딸이 죽었다고 혈우병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왜 지체해서 애를 죽게 만듭니까?” 주님께 대한 원망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 Emergency 사람 급한 사람을 먼저살리고 그 다음 일반 환자를 고치면 됩니다. 바로 앞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래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자기의 딸을 먼저 살리고 나서 그 혈우병자 살리면 되겠습니까? 12 년간 아파왔던 그 여인 몇시간 일찍 낫는다고 뭐가 그렇게 틀리겠습니까? 자신의 딸은 초를 다 투는 순간인데요.

외동딸이 죽게 되자, 그렇게도 기대하던 그 소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이로는 주저 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50 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여러분, 이 말씀은 병든자의 병이 낫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메세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한가지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그가 예수님보다 더 앞장 서서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걸어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딸을 빨리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만이 그의 머리에 가득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그는 저 앞쪽에 서서 빠르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선생님 빨리 따라오세요. 왜 그리도 꾸물거리세요” 하면서 저만치 앞장서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접하는 순간, 그의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 땅에 주저 앉아버린 그 순간, 주님께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아이로를 일으키시고 그 때부터는 주님이 아이로 보다 더 앞장서서 걸어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 갈 때의 발걸음을 인도한 주체는 아이로 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아이로보다 먼저 앞서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아이로의 생애 있어서 복된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 설때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장 서서 가실 때는 무엇이 앞길을 막겠습니까? 내

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갈 수 있습니까? 헤멜뿐일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현재는 내가 소유한 것 별로 없지만, 현재는 내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 할러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장만 서신다면, 감히, 그 앞에 막아 설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으며 누가 있습니까?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하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도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전 15 장은 부활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57 절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승리는 주님께로 부터 입니다. 지금 환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폭풍속을 지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힘내세요. 걱정 하지 마세요. 나의 앞장서신 주님이 스태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야이로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딸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살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이로가 주님께서 죽은 외동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집으로 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납니까? 그러나 야이로의 위대함은, 그럴지라도, 믿지 못할 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왜 따라갔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기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 갑시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신 분이시기에 믿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따라가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시기에 서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은 정작 자신의 외아들은 왜 십자가에 못박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한번더 살피야 하지 않나? 죄의 무게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그 길이는 측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동안 죄를 지어온 죄인입니까? 10 년입니까? 20 년입니까? 저는 살아온 만큼, 전 반세기 동안 죄를 지어온 죄인입니다. 더 비극은 죽을때 까지 죄를 지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못박으셨습니다. 단 한명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를 죽이셨다는 것은 전부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전부를 주신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 분 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시간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기는 방법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 본다면,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부분, 학력, 명예, 나의 신념)
2. 내가 만약 오늘 말씀 속 야이로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과연 야이로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